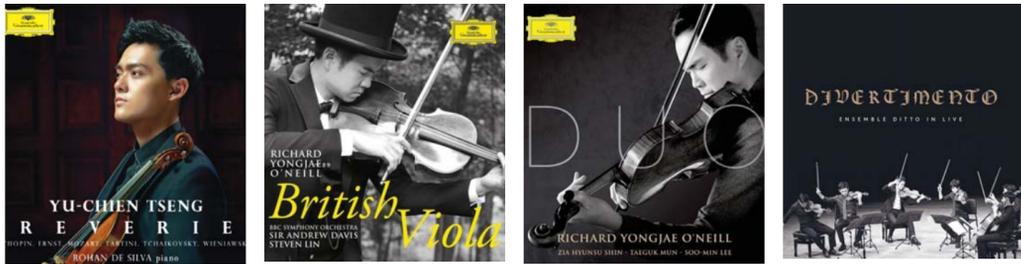


명연주 명음반...다이나믹 실황 생생



왼쪽부터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쳉의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앨범 'Reverie', 피아니스트 스티븐 윌슨이 참여한 용재 오닐의 정규 8집 앨범 '브리티쉬 비올라', 용재 오닐이 신지아, 문태국, 이수민과 함께 발매한 'DUO', 앙상블 디토 라이브 앨범 '디베르티멘토'.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앙상블 디토' 멤버들 핫한 음반

탄탄한 실력과 함께 세련된 외모, 차별화된 마케팅 등으로 무장하고 '꽃밭 디토', '꽃남 앙상블', '클래식계의 아이돌'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모은 앙상블 디토의 멤버들이 다양한 음반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앙상블 디토의 라이브 앨범 'Divertimento'는 앙상블 디토 시즌 10 '혁명가들'과 디토 10주년 공연 '디베르티멘토'의 실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음반은 2CD로, 리처드 용재 오닐 외에 스테판 피 제키브, 마이클 니콜라스 등이 참여했던 야나체크의 '크로이처 소나타'와 베토벤의 대공 피아노 삼중주를 CD 1에, 그리고 CD 2에는 클라리네티스트 김한이 가세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를 수록했다. 디토 특유의 다이나믹한 연주가 느껴지는 음반이다.

제수알도의 '나를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오', 'Ensemble DITTO in Live Divertimento' 등도 담겼다.

용재오닐이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첼리스트 문태국, 비올리스트 이수민과 함께 발매한 'DUO' 앨범은 세 팀의 듀오로 편성돼 있는데 바이올린-비올라, 비올라-비올라, 비올라-첼로로 구성됐다. 악기

10주년 공연 'Divertimento'

용재오닐의 'DUO' 현장 판매

공연 후 사인회...에코백 판매도

별로 신지아, 이수민, 문태국이 참여했고 용재오닐이 매개 역할을 담당했다. 더불어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실내악 경험이 풍부한 것이 앨범을 녹음하면서 큰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앨범에는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 2중주', 베토벤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2중주곡', 영국의 작곡가 프랭크 브리지의 '두 대의 비올라를 위한 에가' 등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다양한 작곡가와 그들의 2중주 곡들이 담겼다.

2015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수상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유치엔 쳉은 지난 2017년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앨범 'Reverie'를 발매했다.

앨범에는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음악성이 돋보이는 낭만

주의 작품을 함께 담았다. 바이올린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라고 평가 받은 주세페 타르티니의 '악마의 트릴'과 에른스트의 '마지막 여름 장미' 그리고 바이올린의 로맨틱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32번 K.454', 쇼팽의 '녹턴 E 플랫 장조' 등이 담겼다.

2014년 루빈스타인 콩쿠르 준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스티븐 윌슨은 용재 오닐의 정규 8집 앨범 '브리티쉬 비올라(British Viola)'에 참여했다. 앨범에는 영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앤드류 데이비스 경의 지휘로 연주한 윌리엄 월튼(William Walton)의 '비올라 협주곡 가 단조'와 프랭크 브리지, 요크 보엔, 벤자민 브리튼 등 기존에 듣기 어려웠던 다양한 영국 작곡가들의 음악들이 수록돼 영국 음악의 정취를 깊게 느낄 수 있다.

한편 '앙상블 디토-다이나믹 라운드'의 광주 공연이 열리는 1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디토 앙상블 라이브 앨범 'Divertimento'와 용재오닐의 'DUO' 앨범 그리고 앙상블 디토 10주년 기념 에코백을 판매한다.

이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디토 멤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인회도 마련된다.

전원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NEAKER'



'COCA COLA'

팝 아티스트 스티븐 윌슨 광주 첫 전시

개인전 '팝 사이키델릭'...7월 3일까지 신세계갤러리

영국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스티븐 윌슨은 코카콜라,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캐릭터인 '크렁크'(KRUNK)를 탄생시켰고 지난해에는 패션계 거장 라거펠트의와 협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티븐 윌슨의 작품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광주 신세계 갤러리는 오는 7월 3일까지 스티븐 윌슨의 개인전 '팝 사이키델릭(POP PSYCHEDELIC)'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하고 독특한 컬러의 실크스 크린 작품을 중심으로 패션, 광고, 대중문화와 콜라보레이션 한 다양한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의 제품과 오브제들은 작

가의 시각을 통해 새롭게 재해석된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맥주 칭타오, 나이키와 아디다스 운동화, 에르메스, 칸버스, 핑퐁볼 등 다양한 업체들과 협업한 작품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무엇보다 원색의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이며 전시장에서는 크렁크 설치작품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소비되는 물건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제품과 작품, 상품과 예술 사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매우 감각적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다양한 프린트, 타이포그래피, 그래픽 디자인 및 아트 디렉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의 062-360-163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6일 통영, 7월 13일 광주...정율성·윤이상 교류 음악회

정율성과 윤이상, 광주와 통영의 대표 음악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난다.

광주 출신 정율성은 항일전쟁 때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였던 팔로군이 부르던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 그의 음악을 기리는 행사는 매년 중국과 광주를 오가며 펼쳐질 만큼 추앙 받는다. 통영이 낳은 음악가 윤이상은 동베를린장벽탄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는 등 오랫동안 경계인으로 살았다. 윤이상은 '광주여 영원히', '화염 속의 천사'와 같은 음악으로 인권 문제를 환기했다.

광주문화재단은 통영국제음악재단과 공동 주관으로 윤이상과 정율성을 조명하는 교류 음악회를 오는 16일(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과 7월 13일(오후 7시 30분)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정율성



윤이상

광주-통영 문화교류 일환인 이번 교류 음악회는 정율성(1914년생)과 윤이상(1917년생)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이

계기가 됐다. 오는 11월에는 광주에서 정율성과 윤이상을 아우르는 항일 심포지엄도 추진된다.

음악회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전문연주단체 TIMF앙상블, 광주 클래식 문화를 이끌어가는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성악원 '평화의 비둘기 주제에 의한 피아노 오중주', 윤이상 '노래', 김선철 '목관과 현악을 위한 6중주 아랑에게', 윤이상 '환상적 단편'을 연주한다. 합주로는 윤이상 '현을 위한 용단'과 정율성 오페라 '망부윤' 중 '아! 수려한 풍경이여', 가곡 '연안승'을 연주한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통영 공연 문의 055-650-0426, 광주 공연 문의 062-670-7469.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리안 솔로이스츠 & 임지영' 공연

15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이 이끄는 코리안솔로이스츠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무대가 마련된다. 15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세계 3대 콩쿠르인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임 씨는 예원, 서울예고를 거쳐 한예종에 영재입학했으며 김남윤을 사사하며 예술사 과정을 졸업했고 최고 연주자 과정 중 독해 현재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은 경희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며 정순수, 백주영, 신지아, 임주영 등 수많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키워낸 클래식계의 대수승이다.

코리안솔로이스츠는 1998년 창단 이후 2016년



임지영

등이 출연하며 비올라 장희재, 첼로 박상민, 김소연, 임재성, 베이스 김두영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전원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 외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 ₩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 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